



라면 익어가는 과정 천천히 즐기며 '지금 여기' 내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2016한책토론회 ... 김훈 '라면을 끓이며'

를 만드는 요령을, 최경선 씨는 상추에 라면을 싸먹을 때의 개운한 맛을 이야기했

전남대 중앙도서관에서

독서모임·학생·시민 등 참석

나만의 라면 요리법 등 소개

최순실 국정농단·세월호 등

다양한 내용도 토론

지 못해 미안하다"며 "대통령은 참회라는 말로도 사치스럽지만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 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애 씨는 "과연 국가 시스템을 믿고 우리는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근 밝혀진 대통령과 측근들의 모습은 왜 그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고민과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인 김근호 교수는 "패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김훈 작기도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전면 자본주의의 폐해와 공공성의 사유화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관을 온 시민 홍민지 씨는 "패널들이 저마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일상에서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1시간 30여 분에 걸친 토론회는 마지막 패널들이 각자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났으며, 올해 진행해왔던 '광주·전남 독'행사도 막을 내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책 읽기도 좋아하고 김훈 작가도 좋아합니다. 한책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관하러 왔어요. 한책 토론회가 독서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곽효승 전남대 경영학과 재학생)

책 한 권을 놓고 광주·전남 시민이 생각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한책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범 시·도민 독서운동 '광주·전남 독'을 진행 중인 전남대는 지난 29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16한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과 시민, 교직원, 독서모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를 토대로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을 교환했다.

국교육과 김근호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모두 네 명의 패널이 참가했다. 전남대 독서모임 '7시 독서클럽'의 박상철 씨, 지산중 학부모독서회 '책향'의 최경선 씨, 전남대 경영학부 시간강사 책모임 'K-line'의 김경애 씨, 송일고 학부모 독서회 '도래섬'의 임수연 씨는 각 독서모임을 대표해 토론을 벌였다.

김근호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라면이 익어가는 과정을 천천히 즐기며 '지금 여기'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과 같다"며 "토론회를 매개로 사물화되고 획일화되어가는 정신을 쇠신하고 인간주의적 가치를 지켜나갈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패널들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했다. 임수연 씨는 라면을 이용해 스키테이

다. '라면' 외에 책 속에 담긴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1인가구의 증가로 '혼밥', '혼술' 등과 같은 문화가 대세로 자리잡은 데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박상철 씨는 "혼밥과 혼술의 유행은 통신매체의 발달과 무관치 않은데, 몇 번의 손가락 놀림으로 먼 곳의 대상과도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됐다"며 "소통을 위한 문명의 발전이 되레 소통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수연 씨는 "1인가구로 대변되는 '혼자'의 문화는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이 있다. 부실한 복지정책과 청년실업이 낳은, 타의에 의한 강요로 발생한 문화가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 김경애 씨는 "'혼밥'이 변화된 가족구조나 인간관계의 단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외로움도 즐기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는 젊은 세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떡볶, 국밥 등이 유행하는 것은 밤은 혼자 먹을 지언정 먹는 즐거움은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려는 심리의 반영"이라고 덧붙였다.

김훈 작가가 책에서 언급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주제는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조건부 퇴진'과 맞물려 패널들은 물론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임수연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주



지난 29일 오후 전남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2016한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를 읽고 토론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손수진 두 번째 시집 '방울뱀이 운다' 펴내

시인은 본질적으로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을 언어라는 예리한 축수로 포착하기 마련이다. 즉 내면의 갈등과 세계에 대한 불만을 자신만의 시어를 통해 형상화하는 존재다.

전 무안문인협회장 손수진 시인이 펴낸 두 번째 시집 '방울뱀이 운다'(천년의 시작)에는 '어둠 속'에 도사린 채 '방울소

리'를 울리는 '방울뱀'으로 상징화된 비극적 삶이 묘사돼 있다. 모두 60여 편의 시들은 세계에 대한 비극성, 그럼에도 꿈꾸는 원초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생명성이 담겨 있다.

"갑갑한 어둠 속에서 방울을 울릴 때마다/ 울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던가/ 당신/ 행여나 발꿈치를 물릴까 봐/ 끝없는



총성을 요구했던가/ 당신/ 때론/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축축한 심장을 꺼내/ 반짝이는 모래 위에 펼쳐 놓고/ 바람의 문장을 새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

표제시 '방울뱀이 운다'는 남녀의 사랑을 모순적 관계로 인식하는 시인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 평론가인 김병복 경남대 교

수는 "소외된 여성의 현실적 처지를 어둠 속에서 파타닉 채 독을 품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방울소리로 알리는 도사린 존재, 즉 방울뱀으로 그려낸 것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평한다.

한편 손수진은 2005년 '시와 사람'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붉은 여우'를 펴냈다. 현재 무안 문화원 사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남문인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9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제22회 광주미술상' 수상자 윤세영·박인선 작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제공>

제 22회 광주미술상 윤세영·박인선 작가

창작 지원금 각 500만원

윤세영(42·한국화)·박인선(33·서양화) 작가가 '제22회 광주미술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배동환)는 지난 29일 광주 YMCA에서 제22회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수상자로 박인선·윤세영 작가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창작지원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이날 운영위원 40명이 투표한 결과 박인선·윤세영 작가가 동수를 기록해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수상자는 지난 3·4회에 이어 19년 만에 탄생했다.

윤세영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 광주 등에서 개인전 7회와 다수 단체전, 기획전, 특별전에 참여했다. 한국화 전공이지만 그동안 영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였다. 인체부조 작품 '가시'(加時)에는 시간 축적과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담았고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영상과 회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박인선 작가는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석사를 마치고 개인전 2회와 단체전을 가졌다. 철거되는 집들이 크레인으로 들

어울려진 모습을 그린 '뿌리'시리즈를 통해 오래되고 낡은 가치는 사라져야만 하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건넨다.

두 작가 모두 올해 열린 '2016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이 깊다. 윤 작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비엔날레 특별전 '0(공)상공화국'에 참여했고 박 작가는 본 전시에 참여하며 주목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한 끝에 상을 거머쥔 윤 작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겠다"며 "광주미술상 수상을 계기로 좀 더 규모있는 작업을 하고 내년에는 전시도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응모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선배님들이 더욱 열심히 하라고 상을 주신 만큼 성실하게 노력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지역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매년 대상자를 공모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가장 비싼 악보는?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65억원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교향곡 2번 '부활' 악보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250만파운드(36억5000만원)에 팔린 모차르트 교향곡 9번, 1994년 150만 파운드(21억9000만원)에 팔린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달아 놓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소더비는 이번 낙찰가에 견줄 만큼 악보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250만파운드(36억5000만원)에 팔린 모차르트 교향곡 9번, 1994년 150만 파운드(21억9000만원)에 팔린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